

[고산문화재단 학술세미나 -격려사]

## 쌍계산문 여신 뜻 되새기는 자리 되길

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

고산문화재단의 진감선사님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고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대 남종선의 선승이자 이 땅에 범패를 전하시고 이를 수행의 단계로 끌어올리신 진감선사 혜소 스님의 생애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.

진감선사께서는 중국으로 유학하여 신감대사의 문하에서 수행하신 후 이 땅으로 돌아와 선사상을 전파하는 한편 쌍계산문을 개산하여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셨습니다.

선사께서는 특히 선수행과 교학연구의 실천적 겸수를 위해 각지를 만행하며 두타행을 실천하셨습니다. 스님의 꾸밈없는 성품과 한결같은 소박함은 지금도 쌍계사에 서 있는 진감선사대공탑비에 새겨져 남아있습니다.

탑비문을 쓴 고운 최치원은 선사를 두고 ‘성품은 꾸밈이 없고 말 또한 꾸며 하지 않았으며, 옷은 삼베라도 따뜻하게 여겼고 음식은 겨와 싸라기라도 달게 여겼다. 도토리나 통을 섞은 밥에 채소반찬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었다’라고 기록했습니다. 스님께서 차나무를 가져와 지리산 자락 화개동에 심으신 뜻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.

오늘 진감선사 혜소스님을 주제로 한 고산문화재단의 학술세미나는 선사께서 개산하신 쌍계산문이 최근 종단의 교구본사에서 쌍계총림으로 승격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
오늘의 학술세미나가 진감선사 혜소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새로이 다지고 아울러 쌍계산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